

中國 朝鮮族 서간문의 誤用 分析*

朴 甲 洙**

1. 서론

금세기 중반 외국어 학습에 응용하기 위해 대조 분석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구조 언어학의 이론을 언어 교육에 응용한 것이다. 대조 분석은 L2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난점이 주로 L1의 간섭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간섭은 대조 분석에 의해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대조 분석을 이용한 교재를 사용하여 집중 훈련을 함으로 그 영향을 억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하지 못한 오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오용은 목표 언어의 규칙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960년대 말기에서 1970년대에 걸쳐 오용 분석(error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analysis)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오용 분석의 결과 오용은 L1의 간섭만이 아니고, L1을 달리하는 학습자에게도 같은 계통적 오용이 나타나며, L1 습득과 L2 습득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오용은 언어 습득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언어 습득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로 생각하게 되었다. 오용 분석은 오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 언어 습득과정을 밝힘으로 언어 습득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오용 분석이 중간 언어의 부분적 설명에 머물렀고, 주관적인 것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하여 1970년 후기 이후에는 언어 행동 총체의 연구를 중간 언어 연구로 하고, 그 일부로 오용 분석을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중간 언어의 가변성(variation)을 갖가지 각도에서 다루어 그 가변성 가운데 계통성·범칙성을 발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용의 원인은 간섭에 의한 오용과 비간섭에 의한 오용으로 나뉜다. 간섭은 물론 오용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비간섭의 오용은 외적 요인에 의한 오용과 내적 요인에 의한 오용으로 나뉜다. 유발에 의한 오용(induced error), 훈련에 의한 전이(transfer of training)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추와 과잉 일반화에 의해 빚어지는 학습方略(learning strategy)에 의한 오용, 전달方略(communication strategy)에 기인한 오용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조선족의 서간문의 오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는 물론 단계적으로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오용 분석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언어 교육을 피하기 위한 학습 대상의 진단 평가라 하여 좋을 것이다.

자료의 서간문은 1991년~1993년 사이의 것으로, 필자가 KBS 사회 교육 방송을 하면서 입수한 것이다. 발신자는 남녀 노소의 제한이 없다. 문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것이다. 따라서 이 서간문의 문장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평균적인 한국어 수준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의 한국어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나아가 L2로서 한국어를 교육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그 실체를 밝혀 보기로 한다. 오용 분석은 자료의 성격상 발음을 제외한 표기, 어휘, 문법, 문장이 될 것이다.

2. 표기상의 오용

2.1. 표기상의 차이

한국의 표기법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의 표기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오용이 발견된다. 하나의 유형은 중국 조선족의 표기 규범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문자 그대로 오용에 의해 잘못된 것이다. 전자는 한국의 규범을 기준으로 할 때 오용이 되나, 현지의 규범으로 볼 때는 바른 것이다. 이것은 물론 국제화를 위해 통일을 할 때까지 인정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오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오용은 표음적인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 잘못된 음운 변동을 반영한 표기, 어원을 잘못 설정한 인식 부족의 표기 등이 많이 보인다. 다음에 이러한 표기상의 오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 규범상의 차이

중국의 표기법으로는 동북 3성 조선어문 사업협의회 조판공실에서 편하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985년 간행한 『조선말 규범집』이 있다. 이는 1966년에 개정된 북한의 『조선어 철자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남한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박갑수, 1995, 1997).

- ①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다.
- ② 남한에서는 여간 모음 ‘ㅣ, ㅐ, ㅑ, ㅓ, ㅕ, ㅗ’ 아래 ‘-어/-었’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여/-였’을 쓴다.
- ③ 남한에서는 한자어의 어두음 ‘ㄹ’과 구개음화한 ‘ㄴ’에 대해 두음법칙을 적용하는데, 중국에서는 원음 표기를 한다.
- ④ 남한에서는 한자어에 ‘ㄱ’이 들어 있는 음절로 ‘게, 레, 메, 폐, 헤, 예’를 인정하는데, 중국에서는 ‘메, 폐’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⑤ 남한에서는 ‘이(齒, 齏)’와의 합성어를 ‘사랑니, 머릿니’로 표기하는데, 중국

에서는 ‘사랑이, 머리가’로 표기한다.

- ⑥ 남한에서는 띄어쓰기를 할 때 중국에 비해 많이 띄어 쓴다.

이러한 규범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조선족 서간문에는 어두에 ‘ㄹ’ 및 구개음화된 ‘ㄴ’이 많이 쓰이고 있고 ‘ㅣ, ㅅ, ㅈ, ㅊ, ㅊ, ㅊ, ㅊ’ 아래 ‘-어/였’이 아닌, ‘-여/-였’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사이시옷의 용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띄어쓰기는 중국의 규범을 지키기보다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들의 용례를 몇 개씩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ㄹ’ 두음의 사용

- 그래서 부끄러움과 미안감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 럽치없는 요구인지 몰라도...
- 그래서 현철씨가 노래한 록음 태입과 노래집을 부쳐 주시기를...
- 그리고 년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성경전서』도 부탁하는데...

② 연결형 등에 ‘-여’의 사용

- 고국으로 춤추며 뛰여가리라.
- 지금은 사회가 발전되여 機械化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 일손이 만이 험하게 되엿습니다.
- 책을 보내 주시여서 다섯 식구가 잘 보고 있습니다.
- 해마다 봄이 오면 개나리꽃 살구꽃 피어나는 곳/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고향 이란다.

③ 종결어미 ‘요’의 사용

- 끝으로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④ 사이시옷의 생략

- 나무잎도 떨어지면 뿌리로 가나...

2.3. 표음적 표기

표음적 표기는 **Heritage langage** 또는 **Kitchen language**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아직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표기에 오류가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자음접변 수용, 속격 조사의 음운 변동 수용 및 연결 표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문자언어 아닌 구어로서는 수용될 수 있는 것이란 특징을 지닌다.

① 자음접변의 수용

자음접변이 일어나는 많은 비음화 현상이 그대로 표기에 나타나고 있다. 설측음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 새해의 인사를 올립니다(올립니다).
- 화목은 더더욱 고국의 친우 친척을 그리게 됩니다(됩니다).
- 1월 31일 문제풀이 정답을 맞추어 보립니다(보립니다).
- 많이 諒解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될 것을 희망합니다(희망합니다).
- 수말리(수만리) 떨어진 고국 땅에서...

② 속격조사 ‘의’의 변동 수용

속격 조사 ‘의’는 많은 것이 ‘에’로 쓰이고 있다.

- 낙동강 기슭에 자리 잡은 나에(나의) 조부님!
- 봄바람에 풍겨오는 고향에(고향의) 향기인양--
- 여지까지 친척들에(친척들의) 소식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 사람에(사람의) 일손이 만이 험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상 쾌락과 사업에(사업의) 순리를 두 손 들어 빌어봅니다.
- 우리 해외동포에(해외동포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③ 연철 표기

어원을 의식하지 못하고, 발음되는 대로 연철한 표기가 많이 보인다. 이는 문법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 저는 60에 가까와 오는 늙으니(늙은이)로서 貴放送의 熱情的인 愛聽者입니다.
- 무슨 훈장으로 가슴에 다라(달아) 올리리까?
- 나는 이 노래를 드를(들을) 때마다/ 가슴을 절켜 주누나.
- 가고 시퍼라(싫어라) 고국이여
- 問題푸리(풀이)는 아주 흥취 있습니다.
- 동이보감, 미술책의 피료되오니(필요되오니) 태산 같은 부탁 드립니다.

④ 기타

칠종성 표기, 단모음화 표기 등이 보인다.

- 毎日과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라디오에 귀를 뺏삭 대고 듯고(듣고) 있었으나...
- 될 수 잇는 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천만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백의민족에 다심 없는 혈맥의 관계로...

- 끝으로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녕히 계십시오(계십시오).
- 띠운(띠운)장은 우리 곁에선 일반적으로 『썩장』이라고 합니다.

2.4. 음운의 변동

구어에서의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발음으로 수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표기의 오용 가운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변동이 그대로 표기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논의할 ‘인식 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숙한 학습 단계를 보여 주는 ‘중간 언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대체로 남한의 언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① ‘ㅈ-ㅊ’의 혼란

- 편지도 제데로(제대로) 써지지 않아서 몇번 썼다가 그만 두고 말았지요
- 특히 막네(막내) 딸이 책을 품에 안고...
- 이른 새벽에 김매리 나가고 달 떠야 호미 매고(매고) 돌아오네.
- 전번 내번(내번) 편지를 방송국에 보내고...
- 오늘까지 제가 전한 편지는 한 차례(차례)도 消息이 없습니다.
- 어렸을 때 부모한테(한테)/ 듣고 들은 고향 이야기

② 전설모음화

- 多彩로운 生活面에서 가진(갖은) 노력을 다하시는 사회교육 방송국

③ ‘ㅎ’음의 약화 탈락

- 제가 소학교를 필업하고부터는 30여년을 한국 자를 쓰지 안아(않아)...
- 전번 저이(저희)가 문제풀이 정답을 매주일 정리하여 일요일에 부치었읍니다.

④ 원순모음화의 수용

- 동구의 기쁜(기쁜) 소식 전하겠노라구/
- 친척 친구들을 찾았으면 무어라 할 수 없이 기쁘겠습니다(기쁘겠습니다).

⑤ 구식 발음

- 사회교육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 신체 근강(건강)과 말은 바 事業에서 더욱 더 큰 성과를 견을 것을 빌면서
- ...

⑥ 기타

· 몇 (몇) 가지 書籍도 요구하였습니다.

2.5. 인식 부족

‘표음적 표기’ 또는 ‘음운 변동’에 의한 오류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이 빚어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인식 부족’에 의한 오용이란 한국 어문에 대해 무지하거나, 필자 나름의 잘못된 어원적 해석을 가해 표기를 함으로 오기를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오용은 선어말 어미 ‘았’을 ‘앗’으로 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 밖에 체언, 용언, 부사, 조사 등에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바른 형태에 대한 인식, 또는 올바른 어원에 대한 지도를 통해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선어말 어미-‘았’의 ‘앗’화

- 여지까지 친척들에 소식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들었습니다).
- 問題푸리 擔當 先生 앞 月曆을 감사히 바닷읍니다(받았습니다).
- 어렸을(어렸을) 때 부모한테/ 듣고 들은 고향 이야기
- 每日과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라디오에 귀를 바삭 대고 있었으나...

② 체언

- 저의 여행은 몇일(며칠) 또는 몇 주일의 시간이 됩니다.
- 밋임(받침)이 韓國 標準語와는 틀린 점이 많으리라구 생각되오니...
- 찌프린 하늘엔 햇님(해님)은 어데 가고
- 이 절기는 경첩(驚蟄)입니다.
- 사람마다 단노절(단오절)에는 유쾌(유쾌)하게 놀기도 하고 그내(그네)도 뛰고...
- 한민족의 좋은 풍습 대대로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51)

③ 용언

- 兄任의 두분 누님의 한 분 계십니다(계십니다).
- 끝으로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녕히 계십시오(계십시오).
- 더 큰 성과를 건울(거둘) 것을 빌면서 이 簞을 놓읍니다.
- 마음을 끌어단겨(끌어당겨) 삼천리 금스강산에 내려치게 하는...
- 그리운 목소리 전파 타고 내려도쳐(나래돌쳐)...
- 언제 가야 서로 맞나(만나) 두 손 잡고 들어 볼까?

- 타국에 태어나 외국땅만 해매돌며 한 맺힌(맺힌) 그 몇 十年이든가.
- 책자를 요청하는데 붓쳐(부쳐) 주시면 무엇보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꼭 붙여(부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 벼모 불고(붓고) 논갈이도 하고 거름도 내고...
- 우리 모국-대한민국에 유관되는 내용을 싫는(싫는) 두 가지 신식...
- 고국 동포들의 앓김없는(아낌없는) 방조 밑에 갈라진 혈육을 다시 찾고...
-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앓다가운(안타까운) 타관 나그네 신세
- 조상님 나라 폭은한(포근한) 어머님 따사로운 품으로...
- 廣野도 山川草木도 歡歌의 갈채를 휘돌으는데(휘두르는데)...

④ 부사

- 每日과 갓이(갈이) 하루도 빠짐없이 라디오에 귀를 뺏삭(바삭) 대고...
- 일손이 만이(많이) 험하게 되였습니다.
- 정성껏 보내 주신 편지와 신년 선물 반가히(반가이) 받았습니다.
- 나는 비로써(비로소) 나기도 만주 따에서 나고...
- 까마귀 요란스리(요란스레) 울어대네, 동구의 기쁜 소식 전하겠노라구.

⑤ 조사

- 每日갓이(갈이) 社會教育 放送局에 방송을 들었으나...
- 매일갓이(갈이) 들어도 그리운 목소리
- 그러면 금일은(은) 이상을오(으로) 불비상서하면서...
- 한국의 역사을(를) 실은 책과 지형지도, 풍경화을(를) 담은 화보와...
- 兄任의(이) 두 분, 누님의(이) 한 분 계십니다.
- 數多한 親戚들의 結緣을 지어 주신 여러 先生들이(의) 至誠에 感動되며...

⑥ 접사 등

- 金宗秀氏는 三兄弟에 셋채(셋째) 아들이고...
- 風霜 고초 겪을 데로(대로) 격으면서도...

3. 어휘상의 오용

어휘의 경우도 규범상 차이가 있는 것과 문자 그대로의 오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은 북한과는 달리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도 남한과 같이 표준어라 하고 있다.(연변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1996) 이 표준어가 남한과 달라 조선족의 서간문에는 한국에서의 용어와 다른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방언 또한 많이 보인다. 이러한 방언에는 북한 방언, 그것도 평안 방언이라 할 것이 많다. 이 밖에 남한에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단어와 우리와 다른 의미로 쓰는 한자어들이 또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규범상의 차이

중국의 규범과 남한의 규범이 달라 차이를 드러내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보기 가운데 ()안의 낱말은 대응되는 남한의 표준어이며, (=)는 중국에서의 복수 표준어를, (?)는 남한어에서 적절한 대응어가 보이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다.

① 체언

- 기념날(=기념일)에 해외 동포들은 고국과 같이...
- 때로는 남편과 안해(아내)로 때로는 할머니와 아들로...
- 선생님들에게 속심(속마음)의 말을 하게 해요.
- 내 왜 나래(=날개) 돌힌 새가 되지 못했더냐?
- 고국에도 곡우에 당콩(=강남콩)을 심는지요?
- 떠운 장은 우리 곁에선 일반적으로 『씩장』(=담복장)이라고 합니다.
- 알아맞추기 못하면 어쩌나 하는 주저심(?)에 그냥 필을 들지 못했지요.

위의 중국의 규범어 가운데 ‘씩장, 주저심’ 외의 단어는 모두 북한의 문화어와 일치하는 것이다.

② 용언

- 맑게 개인(갠) 하늘에 별을 보면서 필을 들어...
- 날이 개이고(개고) 따듯해...
- 까마귀 대가리를 까부시고(까부수고) 금년 일년의 부스럼도 몽땅 까부서서 (까부수어서) 무병할 것이고...
- 마음을 끌어단겨 삼천리 금수 강산에 나래치게(날개치게) 하는 마음에 노래
- 알싸안고 덩굴면서(=뒹글면서) 회포 풀리라.

- 6천만 교류에서 전파로 메아리쳐(메아리저) 울린 민족의 소리...
- 1월 31일 문제풀이 정답을 맞추어(맞히어) 보립니다.
- 저도 적지않은 답안을 맞추어 (맞히어) 보았었는데...
- 그리고 中國語音 방송국에서 배워주는(=가르쳐 주는) 한국말 책
- 문제풀이 시간을 하루의 과제로 빠치지(=빠뜨리지) 않고 공부한답니다.
- 참나무 소나무 밤나무 영근(=여문) 내 고향
- 귀방송국에 편지를 올렸었는데(올렸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위의 중국의 규범어는 모두 북한의 문화어와 동일한 것이다. 이 밖에 중국 서간문에는 남한과 다른 단어라기보다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도 보인다. ‘나다, 암흑한, 피타는, 일떠나, 필요되는’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암흑한’은 북한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이들의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얼굴이 뜨거워 나요(?).
- 이것은 암흑한(?) 현실에 대한 그의 강렬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 고국 동포들의 피타는(?) 대가를/ 무슨 말씀 끝나 참미하리까.
- 백의동포여, 우리 모두 일떠나(?)/ 철석같이 한데 뭉치여/
- 겹히 必要되는(?) 冊子를 요구합니다.

③ 기타

- 하루도 드팀없이(드팀 없게) 우리 민족의 메아리 눈물겨운 사회교육 방송을 청시하고 있어요.
- 모쪼록(아무쪼록) 건강하여 주십시오! 3-95
- 귀국에서 여직껏(여태껏) 보내온 알아맞추기 문제들을...
- 그것이 방송되면 인차(?) 부쳐 보내고 말입니다.
- 하여(그리하여) 放送局 여러분께 도움을 빌면서

이들 가운데 ‘여직껏’은 북한에서도 방언으로 보는 것이다.

3.2. 방언

중국 조선족의 언어 규범으로 볼 때 사투리로 보아야 할 단어들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들은 남한의 규범으로 보아도 대체로 방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보기를 체언과 용언 및 기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보기로 한다.

① 체언

- 우리 백의민족에 다심없는(?) 혈맥의 런계로...
- 저는 당손(장손)으로써...
- 방방곳곳(방방곡곡) 어디라 할 것 없이 노래 불러 주겠어요
- 최외 방방곳곳(방방곡곡)에서 방송국에 도착된 편지들을 소개할 때...
- 고국의 방방면면(방방곡곡)을 많이 알아보자는 것이예요.
- 무슨 신바람(심부름)이나 하라면 알아들으면서도...
- 솥무지(솥무더기) 위/ 빠얼진/ 물둥이와
- 절기 알아맞추기는 집집마다 이 날이면 동지 오구랑죽(?)을 해서 먹지요.
- 이붓자식(의부자식)이라 팔세 말고...
- 갑자기 내린 진눈비(진눈깨비, 눈비)가 멈추더니...

이들 가운데 ‘다심없는’은 중국 및 북한의 사전에도 보이지 않는 방언이며, ‘진눈비’는 중국에서는 ‘진눈, 진눈까비’를 표준어로 보는 것으로, 북한과 같다.

② 용언

- 저녁 방송 시간을 안타까이 기다렸다가 귀를 강구하고(?) 열심히 듣군합니다.
- 우리 성 領事館의 檢査를 걸친다(거친다) 합니다.
- 1938년 2월에 이민으로 딸 둘을 다리고(데리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 어렸을 때 부모한테/ 듣고 들은(들은) 고향 이야기
- 어릴 때 어머니께서 들었든(들었던) 거예요.
- 그럼 저 최근에 맞춰(맞추어) 본 정답을 적어 보냅니다.
- 절벽도 무너지고 바다도 메꾸어(메워)
- 저녁 8시의 ‘새소식’의 내용을 좀더 빨겼으면(불렸으면) 좋겠습니다.
- 다시금/ 못 돌아올/ 두만강 설은(설운) 몰아...
- 인생의 谷雨가 되는 상쌀군요(상설군요).
- 그 날이 速히 올 것을 손꼽아(손꼽아) 기다립니다.
- 저는 대변에 알아마쳤어요(알아맞혔어요).
- 문제풀이 답을 알아맞춘(알아맞힌) 데 있지요.
- 住所가 열뜰하면(?) 落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부칩니다.
- 이 방송의 프로에 귀를 기울여 온 지는 오라지만(오래지만)...

이들 가운데 ‘강구하고’는 ‘강구고’의 방언으로 ‘강구다’는 중국과 북한에서 다 표준어로 보고 있는 말이다. ‘열뜰하면’은 중국과 북한의 사전에도 다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방언으로 보이는 말이다.

③ 기타

- 겸히(겸하여) 必要되는 冊子를 요구합니다.
- 혹 귀방송에 나의 속담이 다문(다만) 얼마라도 나온다면...
- 따뜻한 새봄이 발뽕발뽕(발뽕발뽕) 찾아드는 곳/
- 이제는 어느덧(어느덧) 56년이란 세월이 흘러 한갑(환갑)이 가까워 오니...
- 언녕(얼른) 부치려 했지만 주소를 몰라서...
- 여지(여직/여태)까지 친척들에 소식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 여짓껏(여직껏/여태껏)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참여하여 왔어도...

이들 가운데 ‘겸히’, ‘언녕’은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발뽕발뽕’은 중국에서는 ‘발뽕발뽕’, ‘발뽕발뽕’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보고 있는 말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발뽕발뽕’을 동음이의의 다른 말로 보고 있다.

3.3. 특수한 漢字語

중국 조선족의 서간문에는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단어 또는 특이한 뜻으로 쓰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형태와 의미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3.1. 형태상의 특이어

형태적으로 볼 때 남한에서 쓰이지 않는 말은 중국의 사전에만 수록된 것과, 중국과 북한의 사전에 공통으로 수록된 것, 중국 및 북한의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중국의 사전에만 수록된 것

- 鋼鐵 產量(생산량)에서 英國 프랑스를 초과한 8번째
- 안도현 우전국(우체국) 영업반의 처녀애가 보내달라 하는데요...
- 여러 先生들에게 充分한 感謝의 뜻을 表達하지(표현전달하지) 못하여 大端히 未安합니다.
- 감사의 인사를 이 글로 表達하는(표현전달하는) 바이니 받아 주세요.

- 면에 있는 호구부(호적부?)를 찾아보시게 되면...
- ② 중국과 북한의 사전에 공통으로 수록된것
 - 더 많은 계례 동포들을 위해 복무하실 것을 바라면서, 방송원(방송국원)들이 옥체 건강하실 것을 바랍니다.
 - 제가 소학교를 졸업(卒業)하고부터는 30여년을 한국 자를 쓰지 안아...
 - 저는 북경 민족문화궁에서 해설원(解說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③ 중국 및 북한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
 - 마침 외삼촌께서 고국 갔다 오시면서 錄像帶(비디오테이프)를 가져 오셨지요.
 - 나는 처음 문제 풀리에 參加하며 답복(答復)의 기일이 늦을까바...
 -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민가(民歌?)를 즐겨 듣는데 저의 결혼 레물로 록음 테프를 부쳐 줄 수 있을까요.
 - 저는 북경민족문화궁(北京民族文化宮)에서 해설원(解說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구 각지에 류산(流散?)하고 있는 우리 백의민족에 다심없는 혈맥의 런계로...
 - 존경하는 한국방송공사 사회교육 방송국 부책(負責)동지들!
 - 고향의 부유와 발달로 자호감(自豪感)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 문제풀이 절목(節目:프로)을 들어오면서...
 - 귀 절목(節目:프로)의 애청자로서 방송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 좋기는 서신에 채색사진(天然色寫眞) 한장과...

이들 어휘들 가운데 ①은 중국어로 보이는 것이고, ② ③ 가운데도 일부 단어는 중국어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畢業, 錄像帶 答復, 北京民族文化宮(고유명사), 負責, 自豪感, 節目, 彩色寫眞

3.3.2. 意味上的 특이어

남한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은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의미가 특수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과 북한에서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 안녕하십니까? 공작(?)에서 바빠 돌아치겠지요?
- 저는 공작에 참가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꼭 우리 민족의 교양(?) 사업에 힘으로 될 것 같습니다. (教養 의미差)
- 子息들을 敎育·敎養(학습)함에 도움이 될까하여 국어사전과 韓譯사전을 부탁합니다.
- 고국 인민(동포)들에게 행복을 축복하며, 담당자 동지(?)의 육체 건강을 축원합니다.
- 금후부터 전 각 방면에 료해를 깊이하며...
- 한국 친척 방문을 갔다 오셔서야 한국에 대한 진일보의 료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 부친은 김재식, 모친의 명함(=姓衡)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 아무쪼록 많이 방조를 주시면 합니다.
- 선생님들의 많은 방조 바랍니다.
- 정말 전심전의로 국외동포들을 위하여 복무하누나.
- 저는 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분배받아 출근하는...
- 저는 북경 민족문화궁에서 해설원 사업을(일)을 하고 있습니다.
- 나는 지금 학습에 소요되는 책이 두 가지 있지요.
- 방송국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 國際的 地位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對하여 熱烈히(?) 祝賀합니다.
- 저는 고국 인민들을 한없이 그리는 마음에서 필을 들어 올립니다.
- 中國 大陸과 대만도 人員 往來가 빈번하며
- 수심을 안겨 준 장본이 누구이옵니까?
- 저는 사범학교 학생으로서 또 음악 전업인데...
- 우리집 7식솔은 모두 노래에 특별한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 저는 음악에 대해 흥취를 갖고 있는데...

3.3.3. 관용적 표현

- 크게 힘을 받아 要求를 提起하는 바입니다.
- 미안스러운대로 저의 요구를 제출하오니 될 수 있겠는지요?
- 과분한 요구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선생님께 몇 가지 요구를 제출하겠습니다.

3.4. 한문투

이 밖에 개화기 문체와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 준다. 이의 대표적인 것은 ‘필을 들다/ 필을 놓다’와 같은 표현이다.

- 이 필을 놓으려 합니다.
- 그럼 이만 쓰고 필을 놓겠습니다.
- 필을 들게 됩니다.
- 새해 들어서 또 필을 들게 됩니다.
- 貴方의 발송은 무척 마음이 좋더군요.

4. 문법상의 오류

문법면에서는 활용, 곡용, 수식, 대우법, 시제, 태, 관용적인 표현 등에 오용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활용과 곡용인데, 이들은 방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오용이 주종을 이룬다.

4.1. 활용

용언의 활용은 정상적인 활용을 하지 않고 잘못 활용한 것과, 그 용언의 성격상 그러한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 비문법적 활용의 두 가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형용사가 동사의 활용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4.1.1. 활용의 오용

- 봄나비 고달퍼(고달파) 하는 늦봄에도/ 머나먼 창공을 헤아리누나.
- 이슬이 떨어진 꽃위에 벌이 날라(날아) 든다.
- 어릴 때 어머님께서 들었든 거예요.
- 저는 정말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봐서(만나뵈고) 감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 고향에 수요되는 것이 있다면 서슴치(서슴지) 마시고 알려 주십시오.

- 그리운 부모 보고파 한숨 지우며(지으며)/

4.1.2. 비문법적 활용

- 편지를 받지를 못하고 궁금하는(궁금해 하던) 중에...
- 궁금하는(궁금해하던) 중에 오늘 다섯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 그리운 고향 가고파 애통하는(애통해 하는)
- 소식이 없어 조마조마하는(조마조마해 하는) 중이에요.

이 밖에 접사 ‘-고프다’가 붙은 활용이 있다. 이것은 남북한 모두가 인정하지 않던 것이나, 근자에 간행된 남한의 사전에서는 이를 표준어로 실어 놓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표제어로 올려 놓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조선족의 서간문에는 이 ‘-고프다’계 파생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평안도 방언으로 보이는 것이다.

- 조상님 나라 폭은한 어머니님 따사로운 품으로/ 가고파라 가고파 그 언제 가 보려나.
- 꿈에 보고픈 고향의 금수강산을 보시면서 가요를 들으시던 어머니님은 찬탄을 금치 못하시군요.

4.2. 곡용

곡용의 오용은 1인칭 낮춤말 ‘저’의 주격을 ‘제가’로 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밖에 조사가 생략된 명사문이라 할 문장이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둘 현상이다. 이는 대체로 한국어의 사용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그럼 제가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제가 선생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 제가 총명해서가 아니지요.
- 저는 음악에 대해 흥취를 갖고 있는데...
- 한국 체육이 세계를(로) 진출할 때 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 주야 없이 동포 겨레 위하여 心血 아낌 없으시고 努力하시는 당신들께 연변의 170만 조선인 대표하여 감사 올립니다.

4.3. 수식

의존명사에 관형어가 생략되는가 하면, 여기에 조사가 붙어 접속부사로 전성되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 마추기가 힘들었습니다.
-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녁 8시의 『새소식』의 내용을 좀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 때문에 이번에 서신을 통하여 또한가지 문제를 알아마추어 볼까 합니다.

4.4. 대우법

낮추어 표현해야 할 화자를 존대함으로 오용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우법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이의 바른 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오용을 빚은 것이다.

- 존경하옵신 홍xx, 김xx 두 분 선생님
- 존경하시는 편집원 앞
- 방송원들의 사업은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 존경하시는 김xx, 김xx 두 선생님께
- 방송국 책임자들에게(께)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중국의 저는 선생들에게(께) 충심으로 되는 새해 첫인사를 올리웁니다.

4.5. 시제

문맥에 어울리게 시제가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 선생님 저가 듣는(들은) 말에 고국에 일어교본이 있다는데...
- 가요를 들으시던 어머니은 찬탄을 금치 못하시군요(못하시더군요).

-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몰랐어도(몰라도) 신비롭게만 여겨지는 한국...
- 인도 석가 부락의 왕자로서 후에 출가 수행하였는(수행한) 석가무니...
- 소식이 없어 조마조마하는(조마조마하던) 중이에요.

4.6. 능피동

- 소의 땀은 두 部分으로 나누어(나뉘어) 있는데 즉 胃臟과 千葉이 있는데...
- 또 日曜日이면 老人들이 集合되는데(集合하는데)

4.7. 관용 표현

관용적 표현으로 ‘-기를+타동사’의 표현이 ‘-ㄴ 것+타동사’의 형태로 많이 바뀌어 쓰인다.

- 더 많은 계례 동포들을 위해 복무하실 것을 바라면서, 방송원들이 옥체 건강하실 것을 바랍니다.
- 꼭 부처 줄 것을 믿으면서...
- 존경하는 문제풀이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꼭 붙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그 날이 速히 올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 아모쵸록 힘 다하여 먼 친척이라도 찾아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 끝으로 先生任들의 事業에서 더욱 큰 成果가 있을 것을 고대합니다.

5. 구문상의 오용

구문상의 오용은 구조적으로 성분간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오용은 성분과 성분 사이에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생략에 의해 그 호응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다음에 논의할 의미 호응과 관계되는 것으로, 사고와 구문의 능력이 부족해 빚어지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는 조리 있는 사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5.1. 성분간의 호응

① 주술호응

- 저는 오래전부터 매일저녁 한국 사회교육방송에 귀기울이고 있는 안해와 함께 저도 최근부터 귀맛이 끌려 민족과 통일의 감정에서 이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부끄러운 데로 저의 음악 학습에 도움이 있는(도움을 주는) 책들을 요구합니다.
- 요구될 책자는 『인체해부학』, 『안마치료법』과 『운명철학』 책자를 수요일입니다.

② 객술호응

- 한국 체육이 세계를 진출할 때 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 여짓껏 선생님들의 목소리를(목소리에) 참여하여 왔어도(왔으면서도) 편지 한장 올리지 못한 데 대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얼굴이 뜨거워나요.
- 어린 아이들의 흥분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③ 보술호응

- 이 방송 프로에 보내는 편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됩니다.
-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올려요 긍정으로 대답할 것은 아마 지금부터라도 선생님들의 단골손님으로 되어...
- 또 매일 저녁이면 고국 방송공사에서 보내 드리는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 저의 습관으로 되었습니다.

④ 수식호응

- 大韓民國의 富強壯盛하고 人民들이 自由幸福하시기를 衷心으로 祝願하며 畢을 놓습니다.
- 그때까지 선생님을 친히 만나뵈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은 사회가 발전되어 機械化로 하기 때문에(발전되고 기계화하여) 사람에 일손이 많이 헐하게 되었습니다.

⑤ 접속호응

- 참고로 보시고 부탁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방조해 주시고, 사업에 지장 주면서 애써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없겠습니다).
- 방송국 여러 선생님께서 많은 참고로 해 주시고(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녕히 계십시오(계시기 기원합니다).
- 방송국 선생님께서 방조하여 주시면9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럽치없이 패를 많이 끼친데 대하여 미안한 감상을 느끼면서(미안하게 생각

하며) 여러 선생님들께서 널리 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생략

- 만약 방송국에서 우표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신다면 서로 앞으로 학습하며 교환하려 하오니 수고를 바랍니다.
- 방송국 책임자들에게 재삼 고마운(고맙다고 하는) 인사 드립니다.
- 때로는 남편과 안해로 때로는 할머니와 아들로 (분하여 어떻게) 그렇게 재미 있게 순서를 진행합니까?
-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천 백만 조선 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분망하시고(분망해 하시고) 있겠지요.
- 그리운 정을 나눌(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 방송 사업에서(사업을 하느라고) 매일 바빠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 끝으로 선생님들의 사업이 순리롭기를(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망향시 한 수 드립니다.
- 여러분께서 수고스럽지만 꼭 회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여러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축복합니다.

6. 의미상의 오용

의미상의 오용은 선어하는 과정에서 의미상 부적절한 낱말을 고른 경우와 두 개 이상의 성분 사이에 의미상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6.1. 부적절한 어의

수식과 피수식 대상간에 의미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에는 어휘 선택이 잘못 되었거나, 그 의미를 잘 몰라 오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능하다면 방송국의 건축(건물) 사진과 선생님들이 공작하시는 사진...

- 저는 한국의 문학도들과 기꺼이(다정하게) 사귀고 싶습니다.
- 그러면 오늘은 이만 쓰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행운이 떨어지기(깃들기)를 바랍니다.
- 또 매일 저녁이면 고국 방송공사에서 보내 드리는(주시는)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습관으로 되었습니다.
- 물론 저녁 8시에 『새소식』이 있지만 『종합새소식』보다 내용이 적어서 만족되지(만족스럽지) 않습니다.
- 저의 청구를 들어 주셨으면 더 없이 반갑겠습니다(고맙겠습니다).
- 이번에는 고국의 발전을 반응할(반영할) 수 있는 화보와...
- 하여 放送局 여러분께 도움을 빌면서(청하면서) 國際 郵便局의 주소를 漢字로 어떻게 쓰시는지 下問(문의)하는 바입니다.
- 아래 책자를 요구합니다(요청합니다/ 청구합니다).
- 선생님들께 미안한 부탁 드립니다. ‘대가정 보감’을 요구합니다.
- 이 하잘것 없는 인간의 손을 잡아 주신다면 일체 힘을 바쳐 주겠어요(바치겠어요).
- 이전에도 답안을 여러번 보내드렸지만 무슨 원인(이유)인지 무소식입니다.
- 사실에 대한 진실성의 각도에서 저까지도 이런 보도에 대해 원통(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는 아버지를 잃고(여의고) 자라 아버지의 고향이며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이름을 모른답니다.
- 그리고 또 앞으로 더욱 휘황한 전파(성파)를 얻기 간절히 바랍니다.
- 선생님의 귀체 건강을 축복합니다(축원합니다).
- 그럼 오늘은 여기서 졸필을 줄이면서 귀방송국 사업 일군들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 韓國 標準語와는 틀린(다른) 점이 많으리라구 생각되오니 많이 諒解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어 번역이든가 길 안내원이 필요된다면 저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우리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바치고) 싶습니다.

6.2. 조리 없는 표현

말이나 문장은 의미가 통해야 한다. 그것은 의미 호응이 되어야 하고 조리에 맞아야 한다.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은 말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족의 서간문에는 이러한 의미호응이 제대로 안 되고, 조리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표현

이 많다. 이들의 용례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일 저가 필을 들게 된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귀 고국에 다시 한번 필을 올려 문제풀이 정답을 올립니다(써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 저는 교원의 몸이지만 사업 외에 고국 방송을 애청하는 것도 역시 한가지 락으로 느껴집니다(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는 비로서 나기도 만주파에서 나고, 자라기도 만주파에서 자랐건만(자랐으나) 고국의 옛노래를 드러도(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은(이) 한이 없습니다(한없이 듭니다).
- 많은 참고로 해 주심을 바라면서 앞으로 더 보귀하고 좋은 문제들을 내 주면 즐겨 맞이하게 됩니다(맞이하겠습니다).
- 이번에도 좀 서산한 감이 있어 필을 앓들가 해서(하다가) 혹시 하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 정답을 써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가 하여 필을 또 놀려 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이만 그치면서 다음번 서신 거래때 ‘가정주부’와 ‘문학정신’ 몇 권을 보내 주실 것을 약조하시기 바랍니다.
- 홍xx 선생님 문제풀이 시간은 무슨 연속극을 연결하여 꼭 계속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결심같이 한 가닥의 연극을 본 것 같아 기억이 새롭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이런 心情은 저 혼자뿐 아니라 他國에 살고 있는 同胞들이 故國에서 보내온 선물을 받을 때 血肉이 結緣되고 相逢하였을 때 있는 共同한 心情이라고 生覺합니다.

7. 결어

중국 조선족 서간문의 오용을 살펴보았다. 조선족들은 소위 **Heritage language** 또는 **Kitchen language**를 사용하며, 중간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 중간언어는 사용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선족의 오용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기, 어휘, 문법, 문장 전반에 걸쳐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기는 규범의 차이에 의한 이형태와, 표음적 표기 및 음운 변동, 인식 부족

에 따른 오용이 많다. 어휘의 경우도 규범의 차이에 의한 이형태와 특이한 한자어에 의한 형태 및 어의에 의한 차이를 드러내고, 방언의 사용으로 오용이 빚어지고 있다. 남한과 다른 이러한 중국의 특이성은 북한과는 대체로 일치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문법은 활용·국용 등의 이해 부족 및 방언의 영향으로 오용이 많이 빚어지는가 하면, 수식, 대우법, 시제, 태 등에도 오용의 예가 나타나고 있다. 구문상의 오용은 우선 형태상 성분간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문이 많고, 생략에 의한 의미상의 호응이 되지 않는 비문이 많다는 것이다. 의미는 부적절한 선어와 조리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함으로 비문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Heritage language*를 문법 의식 없이 나열한 데 연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오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의 강화를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간문을 보낼 정도의 조선족은 L1을 학습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조분석을 통해 L2 교육은 긍정적인 전이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부기할 것은 북한 언어와의 관계이다. 하나의 언어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통일된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남북한 언어가 다르고 재외 동포의 언어가 다르다. 이래 가지고서는 국제적인 언어가 되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 및 독립국가 연합과 같은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의 통일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중국 및 독립국가 연합의 언어 규범이 북한의 규범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에 회의 를 갖게 한다. 오히려 한국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1933년의 ‘한글맞춤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회귀는 후퇴가 아니라 통일의 핵의 발견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회랍이나, 이스라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서간문의 오용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위해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중국 조선족의 언어 규범과 남한의 언어 규범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차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 그들의 언어 습득 단계에 따라 오용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오용 교정에 대한 교수법으로는 무엇보다 최소한 한국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법 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오디오 링갈 어 프로치(Audio-lingual approach)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박갑수(1994), 『올바른 언어생활』, 한샘출판사.
- _____(1997), 『한국어교육개론』, 서울사대 외국인들 위한 한국어 지도자과정.
- _____(1995), 「남북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 문제」, 『국제고려학회 학술총서』, 국제고려학회.
- _____(1996), 「남북한의 언어 차이」, 『중학교 국어 3-1』, 교육부.
- 허유희(1996), 「이태리어 학습에 있어 오류 설명의 이론적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13, 이중언어학회.
- D. Larsen-Freeman(1986), *Techniques and priniple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 石田敏子(1995), 『日本語 教授法』, 大修館書店.
- 奥大邦男 편(1992), 『日本語 教育學』, 福村出版.
- 木村宗男 외(1992), 『日本語 教授法』, 櫻楓社.